

인도 중전기기 수출시장 전망

이 원고는 “뉴델리 한국무역관”에서 제공된 것으로 「KOTRA 해외시장」 6월 10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

1991년 경제개혁 및 개방 조치 이후 인도는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대, 정보기술산업 확대와 아울러 연평균 7%대의 활발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 부족으로 산업개발, 국민복지 향상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 인구중 전력 혜택을 받는 사람은 1998년 현재 전체 인구의 46%에 지나지 않으며 농촌 지역의 전력 상황은 더욱 나빠 전체 농촌 인구의 33%만이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인도의 형편이다.

아직 인도 전기분야는 제한된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바가 커 그 개발 및 확대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아직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앙정부, 각 주정부별로 점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기자재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포머, 발전기 등이 수출 유망

전력 부족에 따라 전력분야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유망한 전력기자재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 및 발전기로 보인다.

현재 인도내에서도 트랜스포머 및 발전기는 생산되고 있다.

트랜스포머와 발전기 생산 및 수요는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산 대비 수요의 상대적 증가로 생산, 공급간 갭도 꾸준

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의 전력기자재는 발전용량의 증가세에 크게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3개년간 인도의 전력 생산은 연 6%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인도내 주요 트랜스포머 제조기업은 2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rompton Greaves를 필두로, 21.5%의 Bharat Heavy Electricals Ltd.(BHEL), 8.5%의 EMCO, 7.5%의 Alstom, 5.8%의 NGEF, 4.6%의 Bharat Bijlee, 3.6%의 Kirloskar Electric Company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여타 24.1%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Generator의 경우 Bharat Heavy Electricals(BHEL)이 19.9%로 시장선도적 위치에 있고 다음이 14.5%의 Crompton Greaves, Kirloskar Electric Co. 12.6%, 지멘스 5.7%, Asea Brown Boveri 4%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여타 기업 제품이 나머지 4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준 인도내 트랜스포머 및 발전기 생산수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 트랜스포머 및 발전기 생산수요 동향

(단위 : MLN, kVA)

품 목	1997~1998		1998~1999		1999~2000	
	생산	수요	생산	수요	생산	수요
트랜스포머	41.3	44.0	43.6	45.6	45.3	49.0
발 전 기	33.5	35.8	37.3	40.5	48.0	53.0

자료 : CMIE AND IEEMA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2000년 4월~2001년 3월임.

수입품이 국내 제품보다 고가격대

가. 트랜스포머

현재 업체별 제품가격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용량별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가격대는 다음과 같다.

● 트랜스포머 용량별 가격대

용량(kVA)	가격(I.Re<US\$>)
5	2,500(58)
500	50만(1만1,495)
1천	80만(1만8,390)
1만	450만(10만3,448)

자료 : 뉴델리 소재 도매상

주 : 인도산, 시장내 도매가격 기준임.

이와 같은 인도제품 대비 수입품 가격은 통상 5~10% 정도 고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시장내 성가가 있는 수입 브랜드 제품은 마쓰비시, 제네럴일렉트릭 및 ABB 등이다.

나. 발전기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제조기업별 발전기 가격차는 크지 않은 편으로 용량에 따른 시장내 가격수준은 다음과 같다.

● 발전기 용량별 가격대

용량(kVA)	가격(I.Re<US\$>)
5	3만6천(828)
500	190만(4만3,678)
1천	420만(9만6,552)

자료 : 뉴델리 소재 도매상

주 : 인도산, 시장내 도매가격 기준임.

이와 같은 인도제품 대비, 수입 브랜드 제품은 통상 10~15% 정도의 고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내 성가가 있는 수입브랜드 제품은 미쓰비시, 혼다 및 ABB 제품 등이다.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분류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1997~2002년 중장기 수입관리 정책)상 전기트랜스포머(HS Code : 8504)는 수입자유화 품목(OTL : Open General License)으로 분류돼 있어 관세의 별도 수입규제 사항은 없다.

용량별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650kVA : 53.816%
- 650~1만KVA : 50.8%
- 1만1kVA 이상 : 50.8%

발전기(HS Code : 85114, 85115)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총 67.0864%의 중가세가 적용된다.

용량에 따라 수입방법 상이

대용량의 변압기, 발전기의 경우 전력생산 기업(공기업 포함)이 독자적으로 인도내 제조기업으로부터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수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다만, 용량이 낮은 변압기, 발전기의 경우 인도내 제조기업, 또는 외국의 공급선으로부터 조달(수입)해 관련 도매상, 기타 수요처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다양한 전력개발 프로젝트 진행

최근 3년간 인도내 전력생산, 수요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 전력생산 및 수요동향

(단위 : 십억 kWh)

연 도	전력생산	전력수요
1997~1998	355.15	376.4
1998~1999	365.28	387.2
1999~2000	398.98	422.9

자료 : CMIE AND IEEMA

현재 인도의 전력 상황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인프라 부문의 하나로 인도정부는 내·외자를 통한 발전용량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금조달, 복잡한 행정체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에서 이러한 애로가 심하다. 투자자금의 부족, 송배전 과정상의 손실, 도전 등으로 인한 투자기업의 원리금 회수 전망 불투명 등이 주요 제약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부족에 따라 인도는 여러 전력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외 현재 영국의 Powergen사가 500MW 규모의 Bina Power Project를 인도 중부의 Madhya Pradesh내 추진중이며 조만간 Escrow Account 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Ogden Energy Asia사도 West Bengal Power Development Corporation 사(주정부 공기업임)와 합작기업을 설립, 투자규모 I.Re. 162억(3억7,300만달러), 210MW 발전소 2개를 건설하는 Barksvar Thrmal Power Project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일본 정부 공기업인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및 Marubeni사는 520MW 규모, 소요예산 7억달러 내외의 화력발전소를 인도 동남부 지역인 Aadhra Pradesh주 내에 2000년 2월 건설에 착공, 2003년부터 전력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선진 각국 및 기업의 인도내 전력개발 프로젝트 진출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변압기 및 발전기 부문에서 인도 국내 기업은 물론, 미쓰비시, GE, 혼다, ABB 등 일본, 미국, 유럽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앞으로 인도 전력 산업의 성장 전망에 비추어 이들 기업간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 개발 프로젝트 주요내용

(단위 : MW)

번호	프로젝트명	지역 (주)	용량	Promoter
1	DABHOL CCGT	Maharashtra	740	Enron
2	TORANGGALLU	Karnataka	260	Jindal/Tractbel
3	JOJOBERA TPP	Bihar	240	Jamshedpur/Power
4	PAGUTHAB CCGT	Gujrat	655	Torrent/GIPCL
5	BASHIN BRIDGE DGPP	Tamilnadu	220	GMR Vasavi
6	SURAT LIGNITE	GUJ	250	GIPCL
7	MAHESWAR HEP	M.P	400	Maheswar Hydel
8	ERNAKULAM CCGT	Kerala	107	Bses Power Ltd.
9	KHTHUNGAL HEP	"	21	Indsil Electrsmelts Ltd.
10	ULLUNKAL HEP	"	7	Tecil Chemicals Ltd.
11	BASPA-II HEP	H.P	300	JHPL
12	KARIKKAYAM HEP	Kerala	15	Tecil Chemicals Ltd.
13	KONDAPALLY CCGT	A.P	350	Kondap Licences
14	BUDGE-BUDGE TPP	W.Bengal	500	Wbcsc
15	AHMEDABAD HEP	Gujrat	125	A.E.Co.
16	AHEMADABAD CCGT	"	150	"
17	A.E.COC STATION	"	60	"
18	BSES KERAL CCGT	Kerala	165.5	"
계			4565.6	

자료 : IEEMA

전시회 및 간행물 이용 필요

가. 전시회

현재 인도내에 계획돼 있는 주요 전력기자재 관련 전시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시회명 : ELECRAMA-2002
 - 기간 : 21st January to 26th January 2002 in Mamba
 - 전시회 성격 : Elecrama는 3년에 1번씩 개최되는 전력 및 관련 제품 전문 전시회로 Eastern Part of the World내 관련 전시회중 규모가 가장 큰 전시회임. 현재, 3만m²내 전시장에 약 1천여개사 내외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관처 :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 주소 : 501, Kakad Chambers, 132, Dr. Annie Besant Road, Worli, Mumbai-400018(India)
 - 담당자 : Mr. Sunil More(President)
 - Tel : 91-22-4930532/4936528/4934529
 - Fax : 91-22-4932705

나. 간행물

현재 인도내 전력기자재 관련 주요 잡지는 다음과 같다.

- 잡지명 : IEEMAIL
- 성격 : 월간지로 인도 전기, 전자, 전력 분야 최대 조합인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 Manufactures Associa-

tion(IEEMA)가 발간하고 있음.

아직 한국제품 진출 저조

현재 인도 정부는 현 7만5천MW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키 위해 예산상의 배정은 물론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물론 BOO, BTT 방식의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면한 전력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발전기, 트랜스포머, 파워컨덴서, 전기모터, 터빈, 절연전선 등과 같은 전력기자재 시장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변압기, 발전기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시장에 있어 한국기업의 시장내 위치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 다국적기업이 한국기업보다 훨씬 이전에 인도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제품의 품질, 가격과 향후 시장상승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산 제품의 진출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평가이다.

다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 제품과 경쟁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장접근이 필요하다.

- Crompton Graves, Kirloskar Electric 등 인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시장
- ELECRAMA-2000과 같은 인도내 유명 전력·전기 전시회에 최고급 한국산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제품, 품질 이미지 제고
- 인도내 최대 전력, 전기, 전자조합인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IEEMA) 등 관련 협회와의 협력 강화 및 이들 협회에 대한 꾸준한 제품 설명 노력 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전력기자재의 인도 시장내 입지는 아직 미미하다. 또한 인도 관련 딜러들의 경우 한국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대가 인도기업은 물론 여타 국가 제품 수준보다 높다는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인도 내 발전기 부문(발전소 수주와 관련)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 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발전소 공사입찰 등의 경우)될 경우 시장진출 여지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들 대기업 외 현재 한국의 산일전기 및 대상이 주로 변압기 시장을 겨냥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인 것도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바이어 리스트

다음은 인도의 변압기, 발전기 분야 주요 바이어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요구된다.

- Onyx Enginners
주 소 : 30, Thyag Raj Nagar Market,
Lodhi Road, New Delhi-110003
(India)
대표자 : Mr. Sanjeev Sharma, Proprietor
Tel : (91-11)4611122
Fax : (91-11)4617837
- A.K. Enterprises
주 소 : 3815, Shahganj. J.B. Roda,

- Delhi-110006(India)
대표자 : Mr. A.K. Goel, Proprietor
Tel : (91-11)3542535/3540699
Fax : (91-11)3540699
- Technomac
주 소 : 115, New Okhla Industrial Area-I,
Delhi-110020(India)
대표자 : Mr. Ashok Soni, Partner
Tel : (91-11)6819859/6817245
Fax : (91-11)6819859
- Ashok Traders & Engineers
주 소 : 39, G.B. Road, New Delhi
대표자 : Mr. Ashok Kumar, Proprietor
Tel : (91-11)7535037/7535037
Fax : (91-11)77713151
- JP Engineering Works
주 소 : A-70, G.T. Karnal Road, Industrial
Area, Delhi-110033(India)
대표자 : Mr. Balbinder Singh, Proprietor
Tel : (91-11)7412090/7234756
Fax : (91-11)7073192
- Indian Engineering Co.
주 소 : 11,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Iii, New Delhi-110020(India)
대표자 : Mr. Ajay Soni, Proprietor
Tel : (91-11)6913635
Fax : (91-11)6829571
- Meera & Company Ltd.
주 소 : 18th, Hansalya, 15, Barakhamba
Road, New Delhi-110001(India)
대표자 : Mr. D.S. Bhatnagar, G.M
Tel/Fax : (91-11)3230959
- Jyoti Power Pvt. Ltd.

주소 : C-4, Malviya Nagar, New
Delhi-110017(India)

대표자 : Mr. U.K. Seth, Director

Tel : (91-11)6233007

Fax : (91-11)6285100

○ The Thana Electric Supply Co. Ltd.

주소 : Asian Building, 17, Ramjibhai
Kamani Marg, Ballad Estate,

Numbai-400038(India)

대표자 : Mr. Jaiprakash R Ambekar,
Regional Manager

Tel : (91-22)2615044/2615444

Fax : (91-22)2611069

E-mail : tesco.bom@sma.sprintrpg.ems.
vsnl.net.in

국제유가급등! 에너지는 달려입니다.

